김도영 '홈런킹'…양현종 '13시즌 연속 100이닝'

2026 프로야구를 빛낸 별들…그리고 기록들

211안타 레이예스 '최다 안타'…최정, 11시즌 연속 20홈런 최형우, 역대 최초 2천700안타·강민호, 2천500경기 출장

2026 KBO리그에선 프로야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의미 있는 기록이 쏟아졌다.

롯데 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예스와 kt wiz 최원준은 시즌 막판까지 뜨거운 안타 경쟁을 벌였고, 두 선수 모두 역대 단일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다.

레이예스는 마지막 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터뜨리는 등 강한 뒷심을 발휘하면서 211개의 안타를 기록해 이 부문 최다 기록을 세웠다.

최원준도 208개의 안타를 때렸으나 레이예스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한 시즌 최다 안타 기록과 최다안타 타이틀을 레이예스에게 넘겼다.

레이예스는 안타 기록 외에도 타율 2위(0.363), 타점 6위(109점)를 기록하며 거인 군단의 공격을 이끌었다.

안타 경쟁이 레이예스와 최원준의 대결이었다면, 홈런왕 경쟁은 KIA 타이거즈의 간판타자 김도영과 LG 트윈스의 오스틴 딘, kt 샘 힐리어드가 각축전을 벌였다.

김도영은 코뼈 골절 부상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13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8(9위), 45홈런(1위), 118타점(4위), 11도루의 특급 성적을 냈다.

2024년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던 김도영은 지난해 세 차례나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쳐 조기 시즌 아웃되는 불운을 겪었다.

그러나 올 시즌 완벽하게 부활하며 KBO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KIA 소속 국내 선수가 40홈런을 넘어선 것은 김도영이 처음이다.

오스틴과 힐리어드의 활약도 돋보였다.

오스틴은 올 시즌 144경기에서 타율 0.331(4위), 41홈런(3위), 127타점(3위)의 성적을 올렸고 힐리어드는 142경기 타율 0.304(13위), 44홈런(2위), 139타점(1위)을 기록했다.

힐리어드는 7월에 이어 9-10월 월간 MVP를 받으면서 외국인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단일시즌 월간 MVP 2회 수상 기록을 썼다.

지난 8월엔 삼성 라이온즈의 베테랑 타자 최형우가 KBO리그 최초 개인 통산 2천700개 안타를 돌파했다.

최형우는 올해 올스타전 최고령 출전(42세 6개월 25일), 최고령 만루홈런(42세 8개월 10일), 포스트시즌 최고령 안타, 타점, 홈런 기록 등도 갈아치웠다.

최형우의 팀 동료인 포수 강민호는 리그 최초 2천5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다.

SSG 랜더스 내야수 박성한은 개막 이후 22경기 연속 안타를 작성하면서 김용희 전 롯데 감독이 프로 원년인 1982년 세웠던 개막 이후 18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44년 만에 경신했다.

같은 팀 중심 타자 최정은 KBO리그 최초 11시즌 연속 20홈런을 폭발했다.

마운드에선 두산 베어스의 토종 에이스 곽빈의 활약이 빛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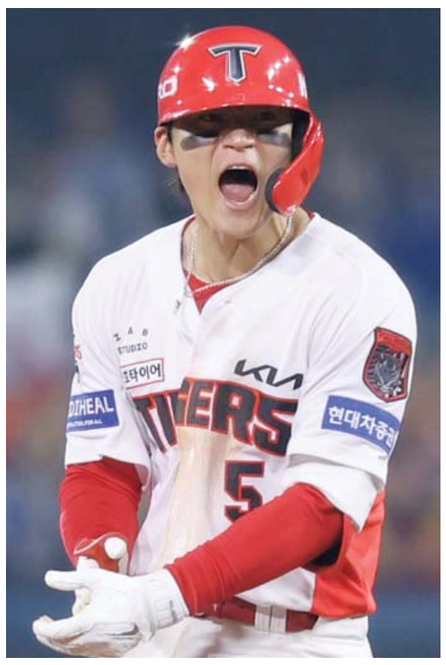
그는 27경기에 선발 등판해 11승 7패 탈삼진 197개(1위), 평균자책점 2.24(1위)를 기록했다.

올 시즌 18홀드를 추가한 LG의 베테랑 불펜 투수 김진성은 개인 통산 홀드를 178개로 늘려 안지만(전 삼성)이 갖고 있던 최다 홀드 기록(177개) 기록을 깼다.

KIA의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은 올 시즌 124⅔이닝을 책임지면서 송진우 전 코치에 이어 KBO리그 역대 두 번째 13시즌 연속 100이닝 기록을 세웠다.

내년 시즌에도 100이닝 이상을 던지면 송진우를 넘어 최장 연속 시즌 100이닝 신기록을 세운다.

한화 이글스의 좌완 에이스 류현진은 역대 최고령·최소 경기 1천500 탈삼진 기록과 한 미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김도영


양현종 〈KIA 타이거즈 제공〉


최형우 /연합뉴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달 31일 홈에서 열린 김천 상무와의 경기를 마친 후 팬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최하위' 광주FC, 승강 플레이오프 확정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K리그1 잔류 희망을 이어가던 광주FC가 부천FC의 포항전 극적인 무승부로 리그 최하위를 확정지었다.

광주는 지난 7일 제주SK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35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분 하승운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전반 종료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아쉬운 무승부로 잠시 미뤄졌던 탈꼴찌 경쟁은 8일 열린 부천FC와 포항전에서 판가름났다.

0대2로 뒤지던 부천이 극적인 2대2 동점으로 승점 1을 추가하며 잔여 경기 3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11위를 기록, 잔류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올 시즌 35경기에서 3승 14무 18패(승점 23)을 기록한 광주는 남은 부천, 포항, 안양과의 세 경기를 모두 승리해도 승점 32점에 그쳐 11위 부천(승점 33)을 따라잡지 못한다.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든 광주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K리그1 잔류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2027시즌 K리그1은 기존 12개 팀에서 14개 팀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김천 상무가 연고 협약 종료로 순위에 관계없이 K리그2로 내려가면서 승강 방식도 달라졌다.

김천 상무가 최하위가 아닌 경우 K리그1 12위 팀은 자동 강등 대신 K리그2 플레이오프 패배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한다.

K리그2에서는 정규리그 1, 위팀이 자동 승격하고 3-6위 4팀은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격팀을 가린다.

3위와 6위, 4위와 5위가 각각 준플레이오프를 치른 후 승리한 두팀이 플레이오프에서 경쟁, 승리팀은 K리그1으로 자동 승격하고, 패배팀이 광주의 상대가 된다.

현재 K리그2는 수원 삼성이 승점 66점으로 1부 승격을 확정한 가운데 수원FC가 승점 60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서울 이랜드가 승점 57점으로 3위, 대구FC가 승점 56점으로 4위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 아이파크와 화성FC가 나란히 승점 48점으로 5-6위에 자리하고 있다.

"K리그1 잔류냐", "4년 만의 2부 강등이냐"의 갈림길에 선 광주로서는 남은 세 경기에서 최상의 팀워크로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광주는 반 흐룬스벤, 주앙 페드로, 바 루아, 아이데일 등 여름 이후 새로 합류한 자원들이 제 기량을 찾아가며 리그 후반기 변모된 팀으로 거듭났다. 아이데일이 지난 9월13일 FC 안양전부터 6경기 연속 골 등 8골을 터뜨렸고, 바 루아도 지난달 11일 울산전에서 2골 2도움을 시작으로 이후 4경기에서 3골 5도움으로 팀 공격을 이끌며 팀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공격력이 증명된 만큼 약점으로 지적된 수비를 보강하며 득점 결정력을 높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K리그1 생존을 걸린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둔 광주로서는 승패를 떠나 공수 조직력을 완성시킬 남은 세 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박희중 기자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마무리캠프 훈련

일본 수비 전문가 소요기 에이신 초빙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 훈련에 일본프로야구(NPB) 출신 소요기 에이신을 수비 인스트럭터로 초빙한다.

소요기 에이신은 2006년 히로시마 도요카프에 입단해 2017년까지 11년간 현역 선수로 활약한 후 은퇴했다. 데뷔 첫해인 2006년 센트럴리그 신인왕을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도루왕 타이틀과 함께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현역 시절 히로시마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며 넓은 수비 범위와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했다.

은퇴 이후에는 오릭스 버팔로스와 한신 타이거스,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 등에서 코치로 활동하며 풍부한 지도자 경험을 쌓았다. 특히 지난 2월에 열린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일본 국가대표팀의 내야수비·주루코치로 활약하기도 했다.


소요기 에이신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 홈페이지〉

KIA 관계자는 "젊은 내야수들의 기본기를 다지고 전반적인 수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야 수비 전문가를 수비 인스트럭터로 초빙했다"며 "소요기 에이신의 현역 시절 경험과 코치로서의 노하우가 젊은 선수들에게 잘 전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요기 에이신 인스트럭터는 10일 선수단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주홍철 기자



'광산구청장배 수중·핀수영 대회' 성료

수중달리기 등 4개 종목 겨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중·핀수영협회(회장 민기홍)는 지난 8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2026 광산구청장배 수중·핀수영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이번 대회는 대회장인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협회 임원을 비롯해 광주시체육회, 광산구체육회 관계자와 생활체육동호회원 100여명이 참가해 33수중달리기, 50m토끼핀수영, 스노클링계주(남녀혼성 4인), 줄다리기(5인) 등 개인전 2종목, 단체전 2종목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참가 선수들은 매년 개최하는 수중·핀수영대회에 높은 만족감과 지속적인 대회 개최를 희망했다.

이번 대회에서 33수중달리기 1위는 오승원씨, 50m토끼핀수영 1위는 최주원씨, 스노클링계주 1위는 박진선·오승원·조병진·최동영씨, 줄다리기 1위는 김경옥·오현태·정종식·정회승·김민주씨가 각각 수상했다.

민기홍 회장은 환영사에서 "색다른 종목을 발굴해 참가 선수들과 동호회원들에게 처음 접한 재미를 선사하는 계기도 제공했으며, 수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수중·핀수영협회는 2021년에 창립해 5회 대회를 개최했다. /박희중 기자

광주 육상 '국무총리기 제주평화의섬 생활체육구간 마라톤대회' 종합 3위

강희구 단장 등 선수단 16명 출전

광주시 생활체육 육상팀이 지난 7일 제주도 일원에서 시·도 대항으로 열린 '2026 국무총리기 제주평화의섬 국제 생활체육구간 마라톤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16명(단장 강희구·감독 정기선)으로 구성된 광주선수단은 연령대별 남녀 10개 구간으로 나뉘어 달리는 이번 릴레이 마라톤 대회에서 뛰어난 조직력과 기량을 선보이며 경북(1위), 제주(2위)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하며 빛고을 육상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김민주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열띤 응원을 펼쳐 출전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김민주 회장은 "광주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훈련하고 출전한 마스터즈 선수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생활체육 마스터즈 육상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광주 육상은 앞으로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 함께 어우러지고 동반 성장하는 진정한 통합 육상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광주육상연맹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